

## 7.23 국가직 7급 경제학 기출문제 (우책형)

양영준 교수

문 1. 무차별곡선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효용의 주관적 측정 가능성을 전제한다.
- ②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을 이용하여 소비자 균형을 설명한다.
- ③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기술대체율이다.
- ④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해 볼록(convex)하다.

1. [정답] ③

[해설] 무차별곡선이란 동일한 만족을 주는 소비계획의 집합이다. 무차별곡선은 기본적으로 서수적 효용함수를 가정한다. 비록 측정할 수 없어도 주관적으로 선호 순서 또는 효용의 크기만 비교할 수 있으면 무차별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지문 ①의 표현이 모호하지만 주관적으로 측정 가능은 주관적으로 비교가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호의 공리를 만족할 때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계획이 결정된다. 한계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두 소비계획의 대체비율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선호의 공리를 만족한다면 무차별곡선은 우하향(강단조성)하고, 원점에 대해 볼록(강볼록성공리)하다.

문 2. 화폐공급의 증감 여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  |  |
|---|---|--|--|
| ㄱ. 금융위기로 인하여 은행의 안전성이 의심되면서 예금주들의 현금 인출이 증가하였다. | ㄴ. 명절을 앞두고 기업의 결제수요가 늘고, 개인들은 명절준비를 위해 현금 보유량을 늘린다. | ㄷ. 한국은행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매입하였다. | ㄹ. 은행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있다. |
|---|---|--|--|

- |   | ①  | ②  | ③  | ④  |
|---|----|----|----|----|
| ① | 감소 | 증가 | 감소 | 증가 |
| ② | 감소 | 감소 | 증가 | 감소 |
| ③ | 증가 | 감소 | 증가 | 감소 |
| ④ | 증가 | 감소 | 감소 | 증가 |

2. [정답] ②

[해설] 은행의 안정성을 의심하여 예금을 인출하면 개인의 현금보유비율은 증가하고, 은행의 지불준비금이 감소하여 대부가 감소하므로 통화공급이 감소한다. 기업과 개인의 현금보유가 늘어나면 은행의 지불준비금이 감소하므로 대부가 줄어 통화공급이 감소한다. 한국은행이 은행 보유 채권을 매입하는 공개시장매입을

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하므로 통화공급이 증가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자산 중 자기자본의 규모를 늘려야 하므로 대부를 줄이고, 현금과 같은 자산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은행의 현금자산의 준비금은 늘고, 대부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공급은 감소한다. 지문 Ⓩ.만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외의 나머지 지문은 모두 통화량이 감소한다.

**문 3. 자유무역이 가져오게 될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질의 노동력에 대한 각국의 임금격차가 줄어든다.
- ② 국가 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커진다.
- ③ 동일한 상품에 대한 국가 간의 가격균등화가 일어난다.
- ④ 수입대체산업이 활성화된다.

**3. [정답] ④**

[해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자유교역이 되면 비교우위재화의 생산은 증가하고, 비교열위재화의 생산은 감소하므로 두 국가의 산업구조가 각각의 비교우위산업을 중심으로 편재된다. 따라서 교역 당사국의 산업구조가 달라진다. 두 국가 사이에 요소이동이 자유롭지 못해도 재화의 교역만 자유롭다면 요소가격의 균등화가 달성된다. 이를 헥서-오린모형의 요소가격균등화정리이다. 두 국가의 재화가 자유롭게 거래되면 국제상대가격 수준으로 상대가격이 균등화된다. 수입대체산업이란 수입품을 수입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발전시킨 산업이다.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 수출산업은 활성화되고, 수입재 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따라서 수입대체산업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수입대체산업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문 4.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TR은 총수입, TC는 총비용이다)**

- ①  $MR = MC$ ,  $TR > TC$
- ②  $MR = MC$ ,  $TR < TC$
- ③  $MR > MC$ ,  $TR > TC$
- ④  $MR > MC$ ,  $TR < TC$

**4. [정답] ①**

[해설] 기업의 이윤극대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MR = MC$ 이다. 이때 기업은 이윤을 얻고자 하므로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한다. 즉,  $TR > TC$ 여야 한다.

**문 5. ⑦ – ⑭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풀(W. Poole)은 통화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중간목표로 통화량과 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물부문이 불확실하다면 (①)을 중간목표로 삼고, 금융부문이 불확실하다면 (②)을 중간목표로 삼는 것이 생산 및 소득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하다.

①

- ① 통화량
- ② 통화량
- ③ 이자율
- ④ 이자율

②

- 통화량
- 이자율
- 통화량
- 이자율

## 5. [정답] ②

### [해설] 생산물 시장이 불안정

풀의 모형에서 독립지출(독립소비지출 및 독립 투자지출)의 변동에 의해 경제변동이 발생하는 경제에서  $IS_0$  일 때 균형  $(r_0, y_0)$ 이고,  $IS_1$  일 때 균형은  $(r_1, y_1)$ 이다.

목표 이자율을  $r_0$ 로 하는 이자율목표체를 실시하면 생산물 시장의 교란으로  $IS$  곡선이  $IS_1$  으로 이동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이자율 하락을 유도한다. 통화량 증가로  $LM$  곡선은  $LM(M_0)$ 에서  $LM(M_1)$  으로 하향 이동하면 목표이자율  $r_0$  가 유지되고, 총수요는  $y_0$ 에서  $y_1$ 로 증가한다. 총수요의 변동이 매우 크다.

목표 통화량을  $M_0$ 로 유지하는 통화량목표체를 실시한다고 하자.  $IS$  곡선이  $IS_1$  으로 우측 이동하여 이자율이  $r_1$  으로 상승, 총수요는  $y_0$  으로 증가해도 통화량은  $M_0$ 로 불변이므로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변경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생산물시장의 교란에 위한 총수요 변동은  $y_0$ 에서  $y_1$  사이에서 변동된다.

따라서 생산물 시장의 교란이 존재하는 경우 이자율 목표보다 통화량 목표가 우월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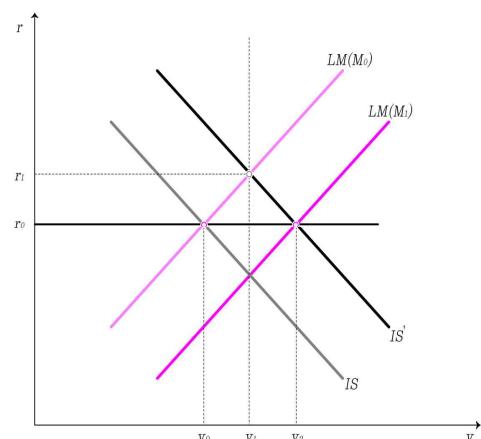
### 화폐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화폐시장에서 외생적 교란이 발생하여 정책을 실패보자. 먼저 목표 이자율을  $r_0$ 로 고정하는 이자율 목표자를 실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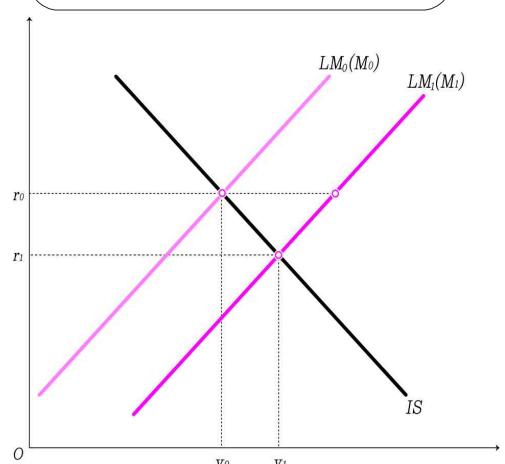
교란에 의해  $LM$  곡선이 하향 이동하므로 이자율이  $r_1$ 에서  $r_0$  수준으로 하락하면 중앙은행은 화폐 금융정책을 이용하여 목표 이자율  $r_0$  를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화폐 공급을 감소시켜야 한다. 화폐공급을 감소하면  $LM$

생산물 시장의 교란



화폐시장에 교란



곡선이 원래 수준으로 상향이동하므로 총수요는 여전히 ↓ 이므로 총수요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목표 통화량을 ↑로 하는 통화량목표체를 살펴보자.  $LM$  곡선이  $LM_0(M_0)$ 에서  $LM_1(M_0)$ 로 하향 이동하면 이자율은 ↓으로 하락하고, 총수요는 ↑으로 증가한다. 화폐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여도 통화량은 여전히 목표 통화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별도의 통화량 조절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출량은 ↓에서 ↑으로 변동한다. 화폐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통화량 목표에 비해 이자율 목표를 시행하는 경우 경제가 더욱 안정적이다. 이상의 결과 시문 ②가 정답이다.

문 6. 정책당국이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7%, 화폐유통속도는 1.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가정한다. 급격한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책당국이 내년 물가상승률을 3%로 억제하  
기 위한 내년도의 적정 통화성장률은?

- ① 6.5%                          ② 7.5%  
③ 8.5%                            ④ 9.5%

#### 6. [정답] ③

[해설] 화폐수량방정식에 따르면  $MV = Py$  이다. 이를 변화율 사이의 관계로 바꾸면  $\hat{M} + \hat{V} = \hat{P} + \hat{y}$  와 같다. 따라서 실질성장률  $\hat{y} = 7\%$ , 유통속도 증가율  $\hat{V} = 1.5\%$ ,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hat{P} = 3\%$  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hat{M} = 3\% + 7\% - 1.5\% = 8.5\%$  이다.

문 7. 화폐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폐는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교환수단으로는 우등(superior)하나, 가치저장수단으로는 열등(inferior)하다.  
② 보몰-토빈(Baumol-Tobin)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화폐수요는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③ 프리드만(M. Friedman)의 화폐수요모델은 케인즈(J. M. Keynes)의 화폐수요모델에 의해 화폐유통속도가 안정적인 것을 전제한다.  
④ 피셔(I. Fisher)의 거래수량설에서 강조된 것은 화폐의 교환수단 기능이다.

#### 7. [정답] ②

[해설] 화폐의 본질적 기능은 교환수단의 기능이다. 여기서 파생된 기능이 가치저장수단의 기능과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다른 재화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화폐는 가치저장기능에서도 다른 재화에 비해 우월하다. 그러나 다른 금융자산과 비교했을 때 다른 금융자산은 단순 저장뿐 아니라 가치증식 즉, 수익을 주지만 화폐는 수익을 주지 않으므로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가치저장기능은 열등하다. 그러나 다른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낮지만 화폐는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교환기능은 우월하다.

보몰-토빈의 화폐수요이론에 따르면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은  $\frac{1}{2}$  이다. 따라서 소득이 2배 증가하면 화폐수요는 2배보다 적게 증가한다.

프리드만은 화폐의 유통속도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았다. 프리드만은 이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닌 실증적으로 유통속도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주장한다. 피셔의 거래수량설 또는 화폐수량설은 거래량과 화폐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폐의 교환수단 즉, 거래적 기능에 기반한 화폐를 전제한 것이다.

문 8. 이자율 기간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대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상승이 예상된다 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함을 의미한다.
- ㄴ. 기대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 하락이 예상된다 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함을 의미한다.
- ㄷ.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상승 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함을 의미한다.
- ㄹ.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단기 이자율하락 이 예상된다는 것은 수익률곡선이 우하향함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8. [정답] ①

[해설] 이자율의 기간구조에 의한 수익률곡선이란 만기에 따른 이자율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기간구조에 대한 이론 중 기대설은 단기채권의 기대수익과 같아지도록 장기채권의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단기채권의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단기채권이자율보다 장기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므로 수익률곡선은 우상향한다.

반면에 단기채권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장기채권의 이자율은 현재 단기채권이자율보다 낮아지므로 수익률곡선은 우하향한다. 유동성프리미엄이론에서 장기채권은 단기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으므로 장기채권의 수익이 단기채권의 기대수익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값과 같도록 결정된다. 단기채권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대수익이 커지므로 장기채권의 이자율이 단기채권 이자율보다 높아 수익률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때 미래 단기채권이자율의 하락이 예상되어도 기대수익의 감소보다 유동성프리미엄이 더 큰 값을 갖는다면 장기채권이자율이 단기채권이자율보다 높아 수익률곡선은 우상향한다. 지문 중 ㄹ은 옳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옳다.

문 9.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한국과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각각 5%, 6%이며, 한국의 예상 물가상승률이 3%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의 예상 물가상승률은 4%이다.  
② 달러에 대한 원화의 실질환율은 상승한다.  
③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  
④ 원/달러 환율은 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9. [정답] ②

[해설]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면  $e = \frac{P}{P^f}$  이고,  $\hat{e} = \hat{P} - \hat{P}^f$  이다.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면  $r = r^f + \hat{e}$  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자율이 각각 5%와 6%이므로  $\hat{e} = -1\%$  이다. 즉, 환율은 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므로 한국의 물가는 3% 상승할 때 환율이 1%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물가는 4% 상승해야 한다.

피서방정식에 의해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므로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2%로 동일하다.

실질환율은  $e \cdot \frac{P^f}{P}$  이고,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명목환율은  $e = \frac{P}{P^f}$  이므로 실질환율은 항상 1로 일정하다. 이상의 결과 지문 ②가 옳지 않다.

문 10. 해외 관광상품 시장의 수요 및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시장 균형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단, 단위는 Q만명, P만원이다)

$$\text{수요함수: } Q_d = 210 - P, \text{ 공급함수: } Q_s = 2P$$

- |              |              |
|--------------|--------------|
| ① (0.5, 1.0) | ② (0.5, 2.0) |
| ③ (1.0, 1.0) | ④ (1.0, 2.0) |

10. [정답] ①

[해설] 균형가격은  $210 - P = 2P$ 인  $P = 70$  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축 절편에서 가격까지가 분모, 가격에서 원점까지가 분자이므로 탄력성은  $\frac{70}{210 - 70} = 0.5$  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수량에서 원점까지가 분모, 절편까지가 분자이다. 공급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다.

문 11. 두 재화 간의 가격의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다면, 두 재화 간의 관계는?

- ① 보완재의 관계
- ② 대체재의 관계
- ③ 정상재와 열등재의 관계
- ④ 사치재와 필수재의 관계

11. [정답] ①

[해설]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요변화율의 비율로  $\epsilon_{xy} = \frac{\Delta x}{\Delta p_y} \cdot \frac{p_y}{x}$  이다. 교차탄력성이 음수라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여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재화는 보완재 관계이다.

문 12. 필립스 곡선 및 자연실업률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이다.
- ② 필립스곡선은 단기총공급곡선을 나타내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 ③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정부가 총수요확대정책을 실시한 경우에 단기적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 ④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필립스곡선은 수직이며, 이 경우 총수요확대정책은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을 달성한다.

**12. [정답] ③**

[해설] 필립스가 처음 도출한 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었다. 지문 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하였으므로 틀렸다.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이후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하향 이동이 아니라 상향 이동한다.

프리드만의 자연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단기에 예측오차가 발생하므로 총수요확대정책을 실시하면 비록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만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아래로 낮아진다. 그러나 장기에는 물가에 대해 인식하게 되므로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에서 수직이다. 따라서 확대정책을 시행해도 실업률은 항상 자연실업률로 일정하므로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다.

**문 13. 어느 기업의 평균수입(AR)함수는  $AR = 60 - 3Q$ , 총비용함수는  $TC = Q^2 - 4Q + 5$ 라고 할 때,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단, Q는 수량, TC는 총비용이다)**

- |      |      |
|------|------|
| ① 4  | ② 8  |
| ③ 12 | ④ 16 |

**13. [정답] ②**

[해설] 평균수익은  $AR = \frac{TR}{Q}$  이므로  $TR = AR \cdot Q$  이다. 따라서  $TR = 60Q - 3Q^2$  이다. 한계수입  $MR = 60 - 6Q$  이다. 총비용은  $TC = Q^2 - 4Q + 5$  이므로 한계비용은  $MC = 2Q - 4$  이다.

이윤극대생산량은  $MR = MC$  일 때 생산량이므로 이윤극대조건은  $60Q - 6Q = 2Q - 4$  이다. 따라서 이윤극대생산량은  $Q = 8$  이다.

**문 14.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P = 6 - 3Q$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일 때, 이 기업의 한계수입이 0이라면 총수입은?**

- |     |     |
|-----|-----|
| ① 1 | ② 2 |
| ③ 3 | ④ 4 |

**14. [정답] ③**

[해설] 가격이  $P = 6 - 3Q$  이므로 총수입은  $TR = (6 - 3Q)Q$  이다. 한계수입은  $MR = 6 - 6Q$  이므로 총수입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MR = 6 - 6Q = 0$  인  $Q = 1$  이다. 생산량이  $Q = 1$  이므로 총수입에 대입하면  $TR = 3$  이다.

**문 15.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4이며 담배의 가격은 2,000원이다.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20% 감소시키고자 할 때, 담배가격의 적정 인상분은?**

- |          |          |
|----------|----------|
| ① 1,000원 | ② 2,000원 |
| ③ 3,000원 | ④ 4,000원 |

### 15. [정답] ①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epsilon_P = 0.4$  이므로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는 4%감소한다. 수요가 20% 감소하려면 가격은 50% 상승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2000원이므로 가격을 1,000원 인상해야 한다.

문 16. 정부가 특정 재화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재화 한 단위 당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 보조금 정책의 시행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 정부의 수입 및 총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 ② 정부의 수입은 감소한다.
- ③ 총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 ④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 16. [정답] ③

[해설]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업이 받고자하는 가격이 단위당 보조금만큼 하락한다. 공급곡선이  $S$ 에서  $S_g$ 로 하향이동한다. 보조금 지급전 가격은  $P_0$ 이고, 보조금 지급 후 가격은  $P_g$ 로 하락하므로 소비자 증가하여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생산량은 증가하므로 생산자 잉여 역시 증가한다. 정부는 사각형  $P_0bdP_n$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정부수입은 감소한다. 보조금으로 증가한 사회적 잉여는 오각형  $P_0aceP_n$ 이므로 삼각형  $abc$ 와 삼가격형  $cde$ 만큼 사회적 순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총 사회적 후생은 감소한다.

문 17. 다음의 경우 정부가 마을 주민을 위해 나무심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액수는?

어느 마을의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자 한다. 마을 주민 각자는 자신의 집에 나무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공원을 지날 때마다 쾌적함을 느낄 것이다. 마을 주민 개인의 공원 나무에 대한 수요함수가  $P = 10 - Q$ 라고 하자.  $P$ 는 나무 한 그루의 가격이고  $Q$ 는 나무의 수량이다. 나무 한 그루를 공원에 심는 비용은 200원이며, 마을 주민은 200명이다.

- ① 1,000원
- ② 1,200원
- ③ 1,400원
- ④ 1,600원

### 17. [정답] ④

[해설] 나무의 쾌적함은 모든 공유할 수 있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누구든 향유할 수 있으므로 비배제성을 갖는다. 주민 200명의 수요는 개인 수요의 수직합으로 구할 수 있다. 수요함수가  $P = 10 - Q$ 이므로 200명의 수직합한 수요는  $P = 2,000 - 200Q$ 이다. 나무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개인들은 편익과 식재비용만 고려하여 나무의 수량을 결정한다. 한그루당 평균비용이 200원으로 일정하므로 한계비용 역시 200원으로 일정하다. 수직합한 수요와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적정 수량이 결정되므로

$2,000 - 200Q = 200$ 이다.  $200Q = 1,800$ 이므로  $Q = 9$ 그루이다. 나무의 가격을 고려할 경우 식재비용은  $TC = (2000 - Q)Q + 200Q$ 이다. 따라서 한계비용은  $2200 - 400Q$ 이다. 적정 수량은  $2000 - 200Q = 2200 - 400Q$ 인  $Q = 1$ 이다. 따라서 9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하기 위해서는 8그루를 심는데 필요한 1,600원을 지원해야 한다.

#### 문 18. 먼델-플레밍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먼델-플레밍 모형은 IS-LM모형과 마찬가지로 재화 및 용역시장을 설명하지만 순수출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 ②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재정정책만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 ③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금융정책만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일국과 관련된 위험할증이 증가하면 소득이 감소한다.

#### 18. [정답] ④

[해설] 먼델-플레밍모형은 달리 IS-LM-BP 모형이라 부른다. 이른 IS-LM 모형에 순수출과 자본수지 즉, 국제수지를 고려한 모형이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개방경제에서 고정환율제도일 때 통화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고, 변동환율제도일 때 재정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 위험할증이 증가할 경우 BP곡선이 상향이동하여 자본이 유출된다. 자본이 유출되면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여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소득이 증가한다.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위험할증이 증가하여 국제수지 적자가 나타나면 국내통화량이 감소하므로 LM곡선이 상향이동하여 소득이 감소한다. 이상의 결과 지문 ④의 내용이 옳지 않다.

#### 문 19. 소비이론 중 생애주기(life-cycle)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는 일생동안 발생할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 ② 청소년기에는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 ③ 저축과 달리 소비의 경우는 일생에 걸쳐 거의 일정한 수준이 유지된다.
- ④ 동일한 수준의 가치분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한계소비성향을 보인다.

#### 19. [정답] ④

[해설] 생애주기가설에서 개인은 평생소득에 근거하여 평생효용을 극대화하는 생애소비를 결정한다. 따라서 소득의 변동이 심해도 생애 소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결정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하고, 중년과 장년기에 주로 소비보다 많은 소득을 얻는다. 동일한 가치분소득을 가져도 평생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소비하고, 평생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은 소비를 하므로 한계소비성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문 20. 타이어에 대한 수요( $Q^D$ )와 공급( $Q^S$ )함수가 각각 $Q^D = 700 - P$ 와 $Q^S = 200 + 4P$ 로 주어져 있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타이어 1개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 $P_S$ )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_D$ )은? (단, $P$ 는 가격을 나타낸다)

- | $\underline{P_S}$ | $\underline{P_D}$ |
|-------------------|-------------------|
| ① 98원             | 108원              |
| ② 100원            | 110원              |

- |        |      |
|--------|------|
| ③ 108원 | 98원  |
| ④ 110원 | 100원 |

20. [정답] ①

[해설] 소비자의 수요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하면  $P=700-Q^d$ 이다. 세금이 단위당 10을 납부해야하는 소비자의 세후 수요곡선은  $P=690-Q$ 이다. 공급곡선을 가격으로 정리하면  $P=-50+\frac{1}{4}Q^o$ 이다. 세후 거래량은  $690-Q=-50+\frac{1}{4}Q$ 인  $Q=592$ 이다. 소비자가 기업에게 지불하는 세후 가격(즉,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P_n=98$ 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정부에 단위당 10원을 더 납부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총  $P=108$  원이다.